

“봉정사 후불탱화, 고려 화엄사상 담겨”

이효걸 교수, 학술대회서 주장

“안동 봉정사 대웅전은 고려 불교사상을 그대로 담아낸 ‘살아 있는 목조사찰 박물관’입니다. 특히 대웅전의 후불탱화와 범문자 단청은 고려 후기 화엄사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요.”

안동대학교 이효걸 교수(사진)는 ‘안동 문화의 수월성과 종합성’을 주제로 7월 7일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린 한국국학진흥원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수기(1435년)에 담긴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시대에 조성된 그림에 중창 때 마다 계속 덧칠한 것이 확실하다”며 “후불탱화와 우물전경의 문자단청, 고주와 대들보의 용 그림 단청, 고법 금단청, 순각박의 주악비현상 등은 당시의 신앙 형태와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봉정사 극락전 후불탱화는 미륵학생도’라는 통설에 대해서 △그림 내용과의 불일치 △〈법당중창기〉의 다각적 해석 가능성 등의 실례를 들어 반증을 펼쳤다.

〈법당중창기〉의 다각적 해석 가능성에 대해 김 교수는 “미륵학생도는 미륵전이나 용화전의 후불탱화이지 대웅전의 후불



고려말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봉정사 대웅전 후불탱화는 당시의 화엄사상 변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고려시대 조성된 그림에 중창때 계속 덧칠”

‘미륵학생도’ 통설 비판... “화엄종-밀교 결합”

이 교수는 안동 봉정사 대웅전의 후불탱화를 통해 고려시대 지역불교의 신앙형태와 사상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 논문 ‘고려시대의 안동불교’에서 이 교수는 ‘대웅전 후불탱화의 의미’ ‘범문자 단청과 화엄사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를 통해 ‘고려 후기의 화엄사상의 변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웅전 후불탱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후불탱화는 <봉정사탑자 조성기(1361년, 공민왕10년)>와 <법당중

창화가 아니라며 이같은 또 대웅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봉정사의 전반적인 불사에 관한 기록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대웅전 후불탱화를 화엄경적 영산회상도로 한 것은 고려시대가 끝날 때까지 봉정사가 다른 종파의 영향권으로 흡수되지 않고 여전히 화엄종 사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는 곧 고려시대의 화엄사상과 신앙이 어떻게 전승·발전되고

있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어간 천정에 육자대명왕 진언을 새겨 넣은 이유는 당시 고려 불교가 화엄종과 밀교의 결합 형태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고려 말기의 밀교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이 원나라를 통해 수용되기 시작했고 그 핵심 다라니인 육자대명왕진언이 크게 유행해 지역의 화엄종 사찰인 봉정사 중창에 신앙의 형태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 “포벽화와 창방·평방의 그림 단청을 포함하는 대웅전 외단청은 장식을 위한 무늬가 아니라 불교의 교훈적인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52선지식을 찾아 다니며 보살수행을

뒤야 마침내 깨달음에 들어간다는 화엄경의 구도 이야기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즉 고려 후기에 원나라를 통해 들어오는 밀교적 신앙과 당시에 유행하던 <화엄경> 입계품 선재동자 권력행 이야기를 대웅전 안쪽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남대 김호동 교수는 “봉정사 대웅전의 불화를 통해 고려후기의 불교 사상과 교리에 대한 내용을 제반 근거 자료를 활용해 유추 해석한 부분은 매우 적절하지만 글의 전개에 있어서 고려시대 전체를 통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 봉정사에 남아있는 국한된 자료조사에 그쳐 아쉽다”고 지적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6>

디스플레이 기술

한적한 산사에도 TV(television)는 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컬러 브라운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각으로 전해지는 정보 가 주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다.

1900년대 말 독일의 과학자에 의해서 브라운관이 발명되고 나서, 인류에게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공기로부터 전해 진 신호를 분리해서 증폭하는 기술과 증폭된 신호를 받아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변환해 주는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가장 먼저 개발된 디스플레이 기구가 브라운관. 원리는 간단하다. 먼저

(Liquid Crystal)이라는 특수 물질을 바른 후, 이 액정의 부분 부분을 픽셀이라고 한다 이 빛을 통과하거나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상을 표현한다. 액정의 양단에 전압을 가하면, 물질의 광학적인 성질이 변하여 빛을 통과하지 않는 액정의 특수한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비해서 PDP기술은 픽셀에 플라즈마 방전을 시켜서 전자의 에너지에 의해서 빛을 내게하는 장치다. 플랫 패널기술에 의해서 TV나 컴퓨터의 화면 부피가 작아지게 된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제 PDP기술을 넘어서 접거나 돌릴 마는 종이와 같은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싶어한다. 종이로 만든 공책 대신에 종이와 같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글도 쓰고 책의 내용도 무

종이처럼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나온다면 통신·공부방식 등 일상생활 크게 달라질 것

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방사하는 전자총이 맨 뒤에 위치해 전자를 방사한다. 전자는 브라운관 표면으로 향해서 운동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된다. 이때 브라운관 표면에는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어서 도착한 전자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빛을 내게 된다. 밤을 밝히는 형광등 또한 표면에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어 방전에 의해서 생긴 전자를 받아서 빛을 낸다. 브라운관의 단점은 부피가 크다는 데 있다. 전자 총에서 방출된 전자가 에너지를 얻기에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한 기술이 최근에 보급되기 시작한 플랫 패널 기술이다. 말 그대로 평판에서 만들어진 디스플레이 기술이라는 뜻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LCD 기술과 PDP 기술이다. LCD는 백색광을 내는 판 위에 액정

선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혁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통신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글을 쓰는 방법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세계에서 가장 일찍 인쇄기술을 개발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로 팔만대장경과 같은 세계적인 유산을 남겨놓았다. 중세 기독교의 성경이 라틴어로 기술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불경 또한 대부분이 한자로 적혀있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대를 맞이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좀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수록 노력하는 것이 현대를 사는 불자들의 보살행이 아닐까 싶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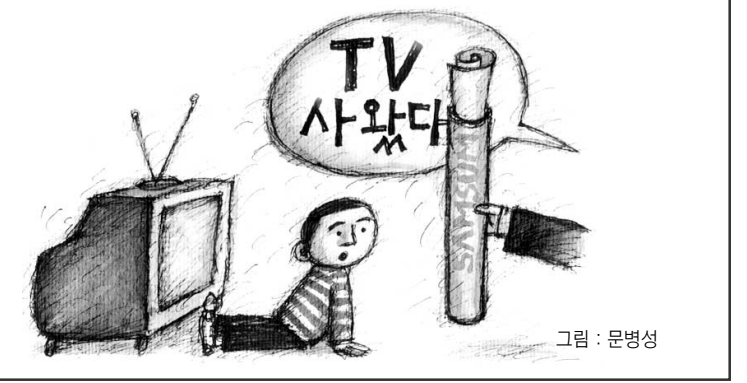


그림: 문병성

고미술품 1500여점 한자리에

7월 12일부터 한국고미술대전 반가사유상 등 귀한 작품 많아

불교문화재·도자기·고서화 등을 한 곳에서 감상하고 구입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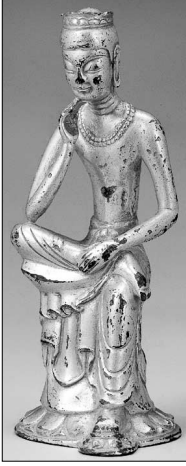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회장 김중준)는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고미술 1500여점을 전시하는 '2006 한국고미술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유수의 박물관 소장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작품으로서가 140억원의 가치에 달할 정도로 진귀한 작품들이 대거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의 최고 볼거리는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높이 11.9cm)'(사진). 이 반가사유상은 머리에 높은 보관(寶冠)을 썼는데 보관양식은 이른바 삼산관을 이루고 있다. 금동 도금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조선전기에 만들어진 '청화백자 송죽대인물문항아리(38.0×17.7×18.8㎝) 또한 이번 전시회의 다크호스'. 궁중에서 장식용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그려 기품이 있고 정교해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청화백자 중에서도 단연 최고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 '청화백자반운문각방' 등도 좋은 볼거리다.

박선영 교수 정년퇴임 기념 '종교교육학연구' 발간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는 동국대 교육학과 박선영 교수(사진) 정년퇴임을 기념해 논문집 <종교교육학연구>를 발간했다. 논문집에는 '불교와 교육'을 주제로 한 기획 논문 6편과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방향을 연구한 논문 6편이 수록돼 있다.



노병철 기자

탄허 스님 '장자남화경'

인터넷 오디오 강의

탄허 스님(사진)의 <장자남화경>강의가 인터넷으로 서비스된다.

탄허문화재단(이사장 혜기)이 운영하는 온라인 포교 사이트 탄허닷컴(www.tanheo.com)은 7월 15일부터 <장자남화경> '내칠편' 육성강의를 내보낸다.

탄허 스님의 <장자> 강의는 선(禪)의 입장에서 도교와 유교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노병철 기자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内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의식이만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편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内

천지간 만물지중엔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엔 유인이 最上最貴 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송 법정이 합장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송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編·著者 法眞 辛承都

제1장 시 식 편	제2장 장 의 편	제3장 다 비 편	매 장	埋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정청 영산대제 괘불이운 건희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심왕상칠제(修往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제7장 靈魂結婚壇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04-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